

IBKS Spot Comment

화학/정유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화학/정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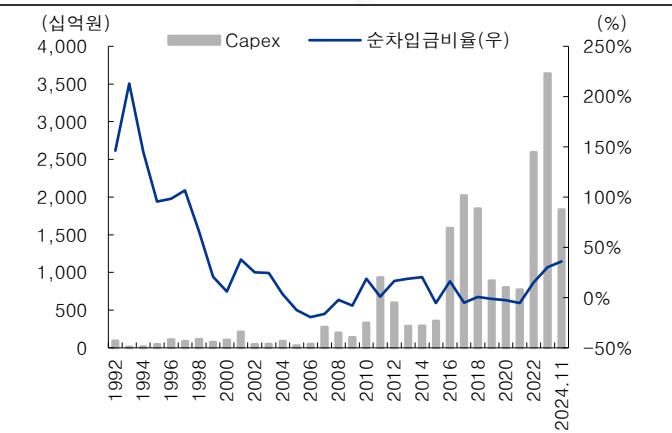
롯데케미칼 시가총액, 지난 15년래 최저치 기록

롯데케미칼 순차입금비율, 업종 평균 대비 여전히 견고하나.....

롯데케미칼은 어제 주가가 전일 대비 10.2% 하락하며, 지난 15년래 가장 낮은 시가총액을 기록하였다. 3년 연속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위기설 등 루머 발생에 기인한다. 한편 동사는 어제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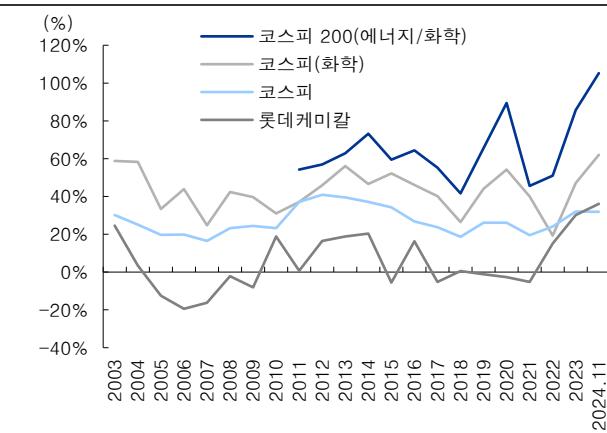
지난 5년 동안 약 10조원의 Capex 투입으로 동사의 올해 3분기말 차입금은 10조7,225 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순차입금비율도 2021년 -5.3%에서 올해 3분기 36.1% 상승하였다. 일반적인 기업의 적정 순차입금비율이 2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동사는 올해 3분기말 기준 3.6조원의 현금예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코스피 화학 업종과 코스피 200 에너지/화학의 올해 3분기말 기준 순차입금비율이 각각 62.0%, 105.2%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동사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는 판단이다. 또한 좀 더 자산 경량화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될 필요는 있으나, 미국/인도네시아 자회사 등의 지분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이 현실화되고 있고, LINE 프로젝트 완공으로 내년 이후 Capex가 급감하는 점도 향후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고로 IMF 시기의 동사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은 각각 225%, 107%였다.

그림 1. 롯데케미칼 Capex/순차입금비율 추이



자료: Quantewise, IBK 투자증권

그림 2. 코스피/롯데케미칼 순차입금비율 추이



자료: Quantewise, IBK 투자증권